

안동 문화 **씨** FEEL

느낌이 있는 관광 | 2024 Summer VOL.66

CONTENTS



Andong



04

시민들이 만들어낸
'안동 벚꽃 축제'



Andong



10

그의 집은 세 칸을 넘지 않았다



Andong



16

무주무손국수, 월영숯불
월영당, 태리커피

(재)한국정신문화재단에서
계절마다 만들어 내는

안동문화필은

안동을 여행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드립니다.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우리 마음의 고향 안동을 여행하는데 꼭 필요한 소중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향기로운 안동의 문화를
전합니다.

안동이어야만 가능하고 안동이어서 가능한 문화예술행사를 적극 홍보하고 이를 통해 나누는 문화를 실천합니다.

우리지역 문화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소중한 문화자산을 대·내외에 알리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싶은 안동을 만들겠습니다.



Andong



20

안동, 여름의 활기 속에 화려하게 꽃피다.
여름날 안동에서 만난 낭만



Andong



24

설화의 고장 안동,
간담을 서늘하게 할 전설 이야기



Andong



28

안동의 사계절 꽃놀이 명소

발행인 이동원 발행처 (재)한국정신문화재단 편집책임 원태경 편집위원 권재환 이상문
주소 36709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00 대표전화 054-840-3400
팩스 054-852-9230 이메일 wontae@kfce.or.kr
홈페이지 www.kfce.or.kr www.maskdance.com www.tourandong.com
발행일 2024년 6월(통권 제66호) 표지디자인 스튜디오 해화 편집 디자인판
제호(題號) 안동문화 **FEEL** 제자(題字) 장종규

* 본지의 구독은 무료입니다.

* 본지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한국정신문화재단 허락없이 무단 복사, 전재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만들어낸 ‘안동 벚꽃 축제’

글, 사진 김군탁

봄,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꽃들이 긴 겨울을 견디고 태동을 준비한다. 그렇게 날이 점점 따뜻해질수록 꽃망울은 하나둘 터져 길거리를, 산을, 강변을 갖가지 색깔의 꽃잎으로 가득 채운다. 산에는 진달래가 피고, 길에는 목련이 피고, 거리에는 매화가 가득 피어 그 향기로 온 동네를 울린다.

매화와 목련이 고개를 떨굴 때쯤이면 온 동네를 화려하게 수놓으며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는 꽃이 피어난다. 그 꽃이 무엇이나 하면 바로 분홍빛이 너무나 아름다운 벚꽃이다. 벚꽃은 주로 가로수로 많이 심어져 도로 주변을 화려하게 장식하며 완전한 봄이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안동 역시 벚꽃이 가로수로 많이 자라고 있어 봄을 화려하게 물들인다. 그리고 바람결에 꽃잎을 사랑살랑 흩뿌리며 우리에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뽐낸다.





하지만 사람들은 벚꽃에 관해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것은 아무래도 벚꽃이 가진 상징성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 상징성이라는 것을 조금만 벗어나면 새로운 세계가 보인다. 벚나무는 종류가 다양하다. 왕벚나무, 산벚나무, 수양벚나무 등 수없이 많은 벚나무의 종류가 있으며, 벚꽃 특유의 상징성과는 관련이 없는 한국적인 벚꽃들도 있다. 그렇기에 벚꽃이 활짝 피는 봄이 오면 벚나무라는 상징적으로 나쁜 인식을 가지지 말고, 벚꽃이 가진 그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주변에서 벚꽃 축제가 열린다면 축제의 분위기에 자신을 맡겨 봄을 마음껏 즐길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한 해의 봄이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 중 하나이다.

즉 4월, 4월이 오면 벚꽃 축제가 열리는 곳으로 향해 봄의 기운을 만끽하고 모두 벚꽃 축제장으로 향해 축제를 즐기며 벚꽃처럼 화사한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이 매년 봄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 중 하나인 것이다. 왜냐하면 화려한 꽃을 매단 나무와 바람이 만들어내는 꽃비는 4월이 아니면 즐길 수 없기 때문이다.





벚꽃이 하늘을 수놓은 4월, 벚꽃이 한창 피었을 때 전국 각지에서는 벚꽃 축제가 열린다. 그것은 벚꽃이 가진 풍성함과 꽃잎이 만들어내는 화려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파스한 봄과 꽃으로 이끌기 때문일 것이다. 벚꽃의 화려함 만큼 전국에서 열리는 벚꽃 축제도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한다. 진해의 군항제나, 여의도의 벚꽃 축제의 경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벚꽃 축제이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벚꽃이 피는 날이면 낮이나, 밤이나 벚꽃 축제를 즐기기 위해 하나둘씩 벚꽃 축제가 열리는 축제장으로 모여든다.

물론 안동에도 벚꽃이 피는 4월이면 '안동 벚꽃 축제'가 열린다. 하지만 안동은 다른 곳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다. 즉, 안동만이 가진 '안동 벚꽃 축제'의 매력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축제의 주체가 안동 시민들이라는 사실이다.

안동에서는 대규모 공연, 유명 가수의 무대, 신나는 디제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주체가 되고 시민이 관객이 되는 벚꽃 축제가 일주일간 열린다. 시민이 무대에 오르고, 시민이 부스를 운영하고, 시민이 그 무대와 부스의 관객이 되는 벚꽃 축제, 그 벚꽃 축제가 바로 안동이 가진 '안동 벚꽃 축제'의 매력인 것이다.

다시 말해, 시민이 자신이 만든 상품을 팔고, 시민이 무대 위에 올라가 가수가 되고, 안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예술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축제, 안동만이 가진 고유한 전통과 현대적인미를 전국에 알리는 축제가 4월이 되면 벚꽃이 만발한 길에서 매년 열리고 있다.

'안동 벚꽃 축제'의 가장 큰 장점은 앞서 말했듯 지역민과의 상생이다. 음식 부스를 비롯하여 프리마켓까지 모두 안동 사람들이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음식과 물건을 판다. 안동의 특산물이 먹을거리가 되고, 안동의 예술이 판매 거리가 되는 축제 그것이 바로 '안동 벚꽃 축제'이다. 또한 무대에 올라서는 것도 안동의 사람들이고, 축제장을 꾸미는 것도 안동의 사람들이다.

이는 전국의 축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민과의 상생!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축제의 장! 그것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민들의 연대를 강화할 방법이기 때문이다.

전국에는 수없이 많은 축제가 계절마다 열리고 있지만, 지역민이 주축이 되지 못하는 축제가 많다. 그런 축제는 지역민들이 단지 관광객에 머물 뿐이다.

그렇기에 '안동 벚꽃 축제'는 지역민이 주축이 된다는 점에서 올바른 축제 문화의 길을 알려준다.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해야 지역 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동 벚꽃 축제'가 보여주고 있다.

유명 가수를 초대해서 축제장을 찾는 사람들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축제장의 무대에 주인공 역시 지역 주민들이 되는 것, 그래서 함께 즐길 거리를 만드는 것, 지역민이 노래도 하고, 장기도 보여주는 것, 지역민이 주인공이 되고 관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지역 축제 문화를 만들어가는 길이 될 것이며, 앞으로 지역 축제의 지침이 될 것이다.

당연한 말인 것도 같지만 지역 축제의 주인은 지역민이다. 하지만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축제는 그리 많지 않다. '안동 벚꽃 축제'의 주인이 안동 시민인 것처럼 지역 축제의 주인은 지역민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역민이 소외되어 객체가 되는 축제가





될 뿐이다. 단지 그 지역의 이름만 딴 축제가 될 뿐인 것이다. 그런 축제는 지역 축제라고 부를 수 없다. 단지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일 뿐이다.

지금도 어디에선가는 지역 축제가 열리고 있을 것이다. 그 지역에도 '안동 벚꽃 축제'가 보여준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축제가 될 것을 권유하고 싶다. 그래야 최근 뉴스에서 수없이 쏟아지는 지역 축제의 문제들, 예를 들어 바가지요금과 같은 잘못된 문화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4년 안동 벚꽃 축제는 이미 끝났다. 장미도 지고, 이팝꽃도 지고, 짙레꽃도 지는 계절이 다가왔다. 이제 백일홍을 비롯한 여름꽃, 가을꽃이 필 것이다. 하지만 안동에는 아직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라는 축제가 남아 있다. 이 역시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는 축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안동이 가진 특색있는 문화를 찾기 위해 많은 사람이 안동을 방문할 것을 기대한다. 안동 강변에 있는 벚꽃은 이제 꽃비가 되어 쏟아져



내렸다. 그 나무에는 푸른색 잎이 파릇파릇하게 자라고 있다. 그리고 꽃이 피었던 자리에는 열매가 맺힐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내년 봄이 또 있기 때문이다. 내년 봄이 되면 벚나무에는 또 벚꽃이 만발할 것이다. 그리고 안동에서는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축제의 장이 또 한번 열릴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한다. 내년 봄 '안동 벚꽃 축제'가 가진 지역 축제와 지역민이 상생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안동을 찾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내년 안동 벚꽃 축제에는 더 많은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해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동 시민들의 연대가 더욱 끈끈해져야 할 것이다.

지역을 살리는 축제! 지역이 주체가 되는 축제! 아름다운 축제의 문화가 앞으로도 꼭 지속되기를 활짝 핀 벚꽃을 기억하며 기대를 걸어본다. 그리고 축제장을

찾은 모든 사람이 축제의 참여자가 되어 즐길 것을 권해본다.



그의 집은 세 칸을 넘지 않았다

글, 사진 이영숙

“군자는 모름지기 선비의 본분과 문명 의식을 지키며, 청렴하고 맑은 마음으로 욕심을 적게 하라.” 조선 중기 성리학의 발전과 보급에 큰 역할을 하신 퇴계 선생 어록이다.

현재의 물질만능주의는 기회만 닿으면 많은 것을 향유하려 한다. 더러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인간의 원초적인 심성이 아닐지 생각한다. 특히 지식과 재능을 갖춘 사람일수록 위의 말을 깊이 새기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역에 지식과 관직을 가졌던 선인들이 많았지만, 특별히 조선 중기 성리학의 대가로 불린 퇴계 선생의 성품을 돌아본다.

가끔 이름이나 호가 그 사람의 모습을 담아내기도 한다. 퇴계는 이황 선생의 호(號)로 평생 소박하고 검소하게 사신 분으로 잘 알려져 있다. 말 그대로 퇴계(退溪)란 ‘물러나 있는 골짜기’라는 뜻으로 겸손함과 청렴함을 떠올리게 한다. 이에 퇴계 이황 선생의 학문을 조금이나마 헤아려보고 그 거처를 둘러보기 위해 길을 나선다. 도산서원 방향 35번 국도 위 구불구불한 산길을 돌았다. 도산면 토계리의 토계천 언저리다. 상계 2교를 건너기 전 한 표지석이 마음을 사로잡는다.

온기로 가득한 계상의 봄이 선생의 병든 몸을 일으키고 봄의 정취에 젖어 들게 했음을 볼 수 있다. 이즈음 보송해진 흙이 꿈틀거린다. 만물을 일깨우는 봄의 싱그러움이 생명의 기운을 잔뜩 불어넣고 있다.

불박이처럼 토계천에 등성등성 앉은 몇 개의 바위가 아랫도리에 물을 걸치고 있다. 가느다란 시냇물에 놓인 징검다리를 풀썩 뛰어넘어 계상학림에 든다. 퇴계



春日溪上(봄날 계상에서)

눈 녹고 얼음 풀리니 맑은 빛 시내에 생겨나고 /
살랑살랑 따뜻한 봄바람 버드나무 제방에 가득 부네
병 털고 일어나 와 보니 그윽한 흥취 흡족한데 /
더욱 어여쁘기는 꽃다운 풀 새로 돌아나려는 것이라네

선생이 50세에 풍기군수를 그만두고 머무신 공간이다. 퇴계 선생은 관직을 갖기보다 토계천에 계상서당을 짓고 후학 양성에 전념하셨다. 당시 23세였던 성호 이의 선생에게 3일간 도학을 전수했다고 한다. 성호 학파였던 율곡 이이 선생은 장원급제 9번을 한 우리나라 최고의 천재로 손꼽히는 위인이다. 선생은 그런 한참 어린 천재에게 작은 집인 계상 서당에서 성학을 토론하셨다. 사실 성리학의 理와 氣, 형상과 본질의 의의를 규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율곡 이이 선생은 이기일원론을 정립하시고, 퇴계 선생은 이기이원론을 주장하셨다.

이렇듯 두 분은 우리나라 최고의 학자로 양대 산맥이다. 협소한 공간이 진심으로 학문만을 탐하는 자에게는 그다지 문제 될 것은 없었나 보다. 이처럼 작은 학문의 공간이 우리 지역의 훌륭한 제자들을 배출시키는 자양분이었으리라. 계상서당에서 퇴계 선생의 수제자인 월천 조목을 비롯하여 겸암 류운룡, 학봉 김성일 등 초기 일곱 분이 이곳에 입문하여 학문을 익혔다. 이로써 계상학림은 도학의 연원 처가 되었다.

6권 3책인 『퇴계언행록』은 평생을 소박하게 사셨던 퇴계 선생의 모습을 엿보게 한다. 한때 선생의 책을 직접 보고 느낀 제자 학봉 김성일 선생은 스승의 검소함을 숭상하여 시냇가 작은 집에서 칩을 엮어 만든 신발을 신었으며 거처는 항상 정리정돈되어 있었고, 종일 독서를 해도 나태함을 보이지 않았다고 기술했다. 이는 높은 학식과 인품을 가졌음에도 더 많이 취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빈곤한 삶을 사신 선생의 성품을 헤아리게 하는 것이리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뛰어난 능력이나 권위만큼 자신의 활동 공간 역시 끝없이 확장해 나가는 것에

집중한다. 하지만 퇴계 선생은 지나친 공간 확장보다는 오직 학문에 대한 정진과 후진 양성에만 힘을 쏟았다. 온전하게 성리학에 입각한 삶이었음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퇴계 선생 하면 경(敬) 사상을 빼놓을 수 없다. 경은 마음을 닦는 일로 마음가짐(存心)을 삼가고 엄숙함을 의미하며, 한곳에 집중해서 이치를 깨고 힘을 기울이는 것에 있다. 혼자 있을 때는 성찰(省察)하여 마음이 하는 일을 알아차리고 늘 깨어 있는 것으로서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경은 마음이 하는 일을 관찰하는 것이기에 성리학을 실천하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으로 경은 학문하는 자가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하는 실천 철학인 것이다.

철학자이자 대학자인 퇴계 선생은 영남학파 창시자 이언적 선생의 주리설을 바탕으로 영남학파(동인, 남인)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안동과 예안 일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주리론인 영남학파(퇴계학파)는 율곡 이이 선생을 중심으로 한 주기론과 쌍벽을 이루었다. 퇴계 문도에는 조목, 김성일, 류성룡, 이덕홍, 권호문, 류중엄 선생 등 수제자로서 많은 학자를 이뤘



토계천의 징검다리 너머 계상학림

선생이 기거한 한서암(초가삼간)과 학문의 공간이자 후학양성을 위한 계상서당(방 한 칸, 마루 반 칸), 그리고 제자들의 기숙사(방 두 칸)로 사용했을 법한 계재가 한적하다. 모두 한 두어 칸쯤 되어 보이는 자그마한 집이다. 작은 집이 퇴계 선생의 단출했던 삶을 말해준다.

퇴계학파를 형성했다. 이후 퇴계 선생의 퇴계학은 우리 실정에 맞는 성리학의 맥을 잇도록 지속적인 탐구와 연구로 이어진다. 그에 따라 퇴계 선생의 학맥은 날이 갈수록 깊이를 더해간다. 또한, 퇴계 선생의 학맥은 수백 년이 지나도 그 연결성은 끊이지 않는다. 날이 갈수록 퇴계 선생의 성학 이론은 재조명된다.

선생은 『주자서절요』, 『자성록』 편집 및 『퇴계전서』, 『계몽전지』, 『송계원명이학통록』 등 다수의 저술을 집필했다. 특히 선조에게 올린 『성학십도』는 성리학에서 다루는 모든 것의 집결 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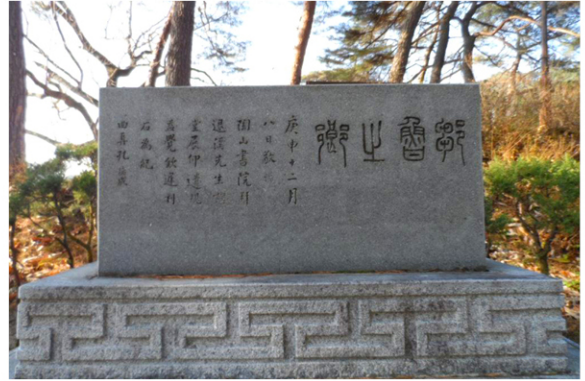
성학십도(聖學十圖)는 그림과 원문으로 이루어진 성리학의 주요 개념 10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도 태극도(우주의 원리)부터 시작하여 제10도 속흥야매잠도(하루 동안 경을 지키는 법)까지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성학십도는 군자의 필독서로 생각된다. 퇴계 선생은 선조가 성학십도에 입각한 삶을 살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동시에 자신도 함께 잘 다스려 성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바쳤다. 모든 저서가 그러하겠지만 삶의 지혜와 지식이 녹아있는 성학십도는 학문 탐구나 권력을 쥔 자들은 탐독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한편 학식이 깊은 퇴계 선생을 흠모했던 선조는 여러 번 홍문관 부제학, 공조참판, 이조판서의 벼슬을 선생에게 내렸다. 벼슬을 모두 마다하자 선조는 선생 사후 영의정에 추증했으며 정사를 멈추고 3일간 애도 기간을 가지게 했다. 이것은 퇴계 선생의 위상을 말해주고도 남음이 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일본은 대학자인 퇴계 선생의 저서나 편지를 약탈해 갔다. 당시 퇴계 선생의 학문이 일본의 사상적 기반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도 그럴 것이 선생은 조선 후기 영남학파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주자의 이론을 발전시켜서 '동방의 주자'라 불리게 되었다. 이처럼 퇴계 선생의 학문은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

도산서원 가는 길 입구 하마비가 있는 지점에서 얼마 못 가 만나게 되는 추로지향(鄒魯之鄉) 표지석이 이를 알려준다. 퇴계 선생의 성리학 탐구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마음이 깃들어있다.

영지산 자락에 자리한 도산서원은 앞에 의춘리의 시사단과 마주한다. 정조는 일찍이 예와 겸손으로 지위를 탐하지 않고 동쪽 언덕을 지키며 학문에



한때 공자 77대 장손 공덕성 박사가 1980년 도산서원 방문 시 추로지향(鄒魯之鄉)이란 말을 썼다. 이 말은 공자의 노(魯) 나라와 맹자가 살았던 추(鄒)나라를 비유하여 쓰던 말로 성인이 살던 고장이란 뜻에서 퇴계 선생의 고향을 추로지향이란 말로 일컬었다.

정진하고 훈화에 열중했던 퇴계 선생을 칭송하는 치제문을 썼다. 그해 1792년 정조(정조 16년)는 퇴계 선생의 학덕과 유업을 기리고자 의춘리 소나무 숲에서 영남 인재 선발을 위해 특별과거시험(도산별과)을 보게 했다. 물론 당쟁과 서학(西學)으로 인해 흔들리는 유교 질서를 바로잡아 민심을 안정시키려는 의도도 배제할 수는 없었다. 아무튼, 이를 계기로 1994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도산서원 마당에서 '도산별과' 대전이 열리고 있다. 도산별과 행사는 그 옛날 특별 과거 시험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세대 간 소통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시사단 맞은편 도산서원은 '한국 정신문화의 성지라 일컫는다.'고 해서 계상학림과 함께 도학의 연원처가 된다. 토계천에서 학문의 공간으로 쓰였던 계상서당이 너무 협소하여 퇴계 선생은 공간 확장이자 학문의 연장선으로 도산에 도산서당을 지었다.

퇴계 선생 사후 지어진 도산서원 내의 도산서당이 소소하다. 서당 입구를 지키는 유정문은 퇴계 선생처럼 소박하다. 누구든지 맞이하려는 듯 언제나 활짝 열려 있는 유정문 너머로 곧장 도산서당 현판이 눈을 사로잡는다.

퇴계 선생이 직접 쓰신 '도산서당' 현판 글씨가 의미 심장하다. 도산은 예전에 질그릇을 굽던 산이란 뜻에서 '질그릇도(陶)' 한자를 썼다. 산(山)은 세 개의 봉우리가 뾰족하게(그림으로 그려져 있다. '서' 자는 '쓸서(書)', 받침 해일(日) 중간에 한일(一)자 대신 한 마리의 새 그림이 그려져 있다. 마지막 네 번째 글자인 당자는



싸리나무로 만들어진 소박한 유정문



집당(堂) 한자로만 이루어져 있다.

처음과 마지막 글자는 한문이고 중간 두 글자는 산과 새 그림으로 이루어진 글자로 선생의 재치를 엿보게 한다. ‘도산서당’의 글씨와 그림을 직역하면 ‘질그릇을 많이 굽던 산에서 집을 짓고 학문을 연구한다.’ 무엇보다도 글 서(書)에 새를 그려 넣은 것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란 속담이 있듯 학문의 자세도 그러해야 함을 알려준다.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먹을 것을 찾는 새들처럼 학문도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끊임없이 탐구하라는 퇴계 선생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 부엌과 방 그리고 마루로 이루어진 세 칸짜리 집은 학문을 가르치는 서당이기보다는 차라리 작은 가정집으로 보인다. 협소한 부엌과 방이 퇴계 선생의 깊은 학문의 도와 너무 상반되어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여기에는 평소 퇴계 선생이 학문연구를 위해 가졌던 소소한 마음이 스며 있다. 선생에게 있어

좁은 공간은 학문을 이루는데 장애물일 수는 없었다. 선생의 크고 높은 학문은 협소한 공간을 뛰어넘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자고로 재능과 업적은 장소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다만 본인의 마음가짐이 중요했을 뿐이다.

퇴계 선생은 큰 벼슬로 부귀영화를 누리기보다는 일생의 대부분을 학문 탐구와 제자 양성에 힘을 쏟았다. 안동은 우리나라에서 고택이 많기로 이름난 고장이다. 그랬기에 당시 우리 지역의 명망 높은 집안 자제(子弟)들 대부분은 유명한 퇴계 선생에게 학문을 배우고 익혔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유능한 학자들을 많이 배출시켰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퇴계로부터 학문을 연마한 학자들은 나라에 중추적인 인물로 성장했으며 지역민을 보살피고 이끄는 주역이 되었다. 곳곳에 기거한 제자들은 퇴계 선생이 가르친 성학을 기반으로 배움의 깊이를 넓혀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갔다. 그렇듯 퇴계 선생 문하생들은 주자학을 기반으로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 입신의 경지에 도달했다. 그뿐만 아니라, 퇴계 선생을 비롯한 제자들은 언제나 겸양(謙讓)의 미덕을 잃지 않았다. 이러한 것은 자신의 재능을 과대 포장하거나 화려함을 표출하려고 하는 현대인에게는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아마도 뛰어난 선생의 학문은 동편 암서헌(嚴棲軒) 마루에서 이루어졌으리라. 자고로 뛰어난 스승 밑에는 좋은 제자가 나오기 마련이다. 퇴계 선생이 훌륭한 인성과 박학다식한 면모를 가졌기에 제자들 역시 좋은 인품으로 뛰어난 학문의 경지에 이를 수밖에 없었으리라. 학문연구와 강학의 공간으로 쓰였던 완락재와 암서헌은 너무도 협소한 공간이지만 인격과 학문 수양에 있어 걸림돌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순박한 일상에서 학문의 깊이를 더해갔음을 보여준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이나 지식으로 부를 축적한다. 다다익선(多多益善)이라고 누구나 많이 가질수록 좋아하지, 마다하지 않는다. 때로는 금전이나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느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자신의 특출한 능력과 재능을 과시하거나 확장해 나가며 끝없는 탐심에 젖어 물질적인 것에 집착한다. 그것은 자신의 어떤 뛰어난이나 위상을 한껏 높여 많은 사람으로부터 동경이나 부러움을 사게 만든다. 너무도 이기적이며 물질적인 세속에 현혹된 욕심이다. 검약(儉約)함은 그다지 찾아볼 수 없다.



학문연구 공간인 안락재



강학의 공간 암서헌



덧댄 반칸짜리 살평상

최대로 화려함과 우아함을 드러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그뿐인가, 공간을 계속 넓혀 나가는 것에도 집착한다. 나 역시 이기적이며 세속적인 삶에 찌든 어설픈 의식을 가졌기에 만감이 교차 되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학문 탐구와 후학 양성에 있어 화려함이나 위선으로 가득 찬 선생의 내면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온전히 순수함만 엿보인다. 애초에 선생은 학문을 배우고 익히는데 장소나 화려한 건물을 탐하지 않았다. 항상 소탈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선생은 모든 과식을 멀리했다.

세 칸짜리 집은 명망 높은 퇴계 선생의 인품을 보여준다. 즉 삼간지제(三間之制)¹⁾는 작은 집으로 퇴계 선생의 청빈함이자 겸손함이다. 비록 좁은 배움의 공간이지만 여기에는 선비의 기개가 스며 있고 넓은 도량이 깃들여있다. 부와 탐욕을 떠난 순수함과 겸손함은 누구나 가져야 할 성품이다.

자고로 선비의 집은 3칸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은 학문을 탐구하는 자의 소소(昭昭)한 마음가짐을 말해주기에 충분하다. 선생의 작은 공간은 학문을 이루기 위한 길로 먼저 마음을 닦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선생은 협소한 공간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없는 학문 탐구만 했기에 다수의 저서 집필과 지역의 걸출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었다. 그러해서 학문을 연구하고 후학을 양성하는 좁은 장소는 인고를 달게 견뎌내는 겸양의 미덕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훗날 암서헌(嚴棲軒) 옆에 살평상이 놓였다. 안동 부사 한강 정구 선생이 한때 퇴계 선생으로부터 배움의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한 평 정도의 격자문을 덧댔다. 한자리에 장시간 앉아 공부하려면 마루의 통풍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했다. 그런 세심함을 헤아린 정구 선생은 스승이 늘 추구했던 삼간지제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살평상을 만들었다. 현재는 공부를 위한 공간이기보다는 방문자들이 편안하게 앉아 쉬는 용도로 쓰인다. 마루에 덧붙여진 살평상은 한때의 여유이자 휴식의 장이다. 작은 공간이 가져다주는 편안함은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움에서도 우러난다.

도산서당 마당의 정우당(淨友堂)은 깨끗한 벗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탐욕은 버리라는 의미에서 자리하고 있다. 진흙 속에 피는 연꽃은 순결, 청결, 신선한 아름다움을 가졌지만, 무엇보다도 더러움 속에서도 깨끗함을 간직하며 순결하게 피는 꽃으로 선비의 심성과 같다. 누구든지 지식을 쌓고 학문을 연구하면서 무엇을 탐하기보다 순수한 마음으로 정도(定道)의 길로 향하라고 정우당이 일러준다.

1) 삼간지제(三間之制): 선비의 집은 3칸을 넘지 않아야 한다.(작은 집은 청빈의 상징)



사실 퇴계 선생은 세 칸짜리 도산서당을 지으며 너무 크지 않을까 염려했다고 한다. 청빈한 삶을 추구했던 퇴계 선생은 배움에 있어 모든 탐욕을 내려놓았기에 작은 집도 크게 와 닿았을 줄로 안다. 그러했기에 선생의 집은 세 칸을 넘지 않았다.

퇴계 선생 하면 매화나무를 빼놓을 수 없다. 매화에 남다른 애정(愛情)을 가졌던 선생은 삶의 마지막 순간 매화나무에 물을 주라고 했다. 설한에도 아랑곳없이 오롯이 꽃을 피우는 매화의 기상은 선비가 갖추어야 할 품행으로 고결한 이상이였다. 온통 매화나무로 가득한 도산서원의 정원이 향기롭다.

그뿐인가 절우사(節友社)에 사군자(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비롯하여 언제나 사철 녹음을 잃지 않는 소나무도 가까이에 두었다. 선생은 주변의 자연을 마음속으로 끌어당겨 늘 감상하며 배움을 즐거움의 낙으로 삼았다. 특히 동남쪽 산기슭의 자연은 언제나 한결같이 사군자를 벗하며 학문에 매진할 것을 은연중에 알려주는 퇴계 선생의性情(性情)으로 와 닿는다. 그러하기에 성리학이 자연과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학문을 추구하는 자의 올바른 정신이자 깨달음의 도(道)는 아닐까 싶다.

소박한 작은 집이 주인의 품격을 말해준다. 수백 년이 지난 배움의 터전인 세 칸짜리 도산서당은 소박함과 겸손한 미덕이 배어있다. 학문을 연구하는데 집의 크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에 먼저 지나친 마음을 버리는 게 중요하다. 누구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연과 마주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퇴계 선생은 학문을 연구하고 후학을 양성하는데 먼저 겸손함과 청렴함을 우선으로 했다. 소탈한 마음으로 자연의 이치와 도리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이기도 했으리라.

세 칸짜리 작은 도산서당은 특별한 공간으로 무수한 삶의 지혜와 의미가 녹아있다. 어쩌면 도산서당과 절우사는 성역의 공간으로 선생이 지향했던 끝없는 학문처럼 거대한 우주와 자연의 이치가 스며 있는 작지만, 큰 공간으로 느껴진다.

퇴계 선생의 삶이 스며 있는 그 옛날 배움의 터전 앞에서 후대인들은 공연히 숙연해질 법도 하다. 선생은 유학자로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소소한 삶의 방향성을 일찍이 깨달았다. 이로써 선생의 소박하고 겸손한 생활은 평소 일상에 대한 열린 사고와 청빈함 그리고 자연애에서 비롯되었음을 느끼게 한다. 차고로 자연의 도리와 이치에 순응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질 때만이 비로소 학문을 탐구하고 올바른 도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끝으로 퇴계 선생의 사상과 철학이 숨어있고, 평생을 축약했을 법한 두 편의 시로 이 글을 맺는다.

자명(自銘)

나면서부터 크게 어리석었고 / 자라면서는 병도 많았네
 중년엔 어찌 학문을 좋아하였으며 / 만년엔 어찌 외람되어 벼슬 높았던가!
 학문은 구할수록 더욱 멀어지고 / 벼슬은 마다해도 더욱더 주어졌네
 벼슬길에 나감에 차질이 많으니 / 물러나 숨어 살기로 뜻 더욱 굳혀졌네

퇴계(退溪)

몸 물러나 이 어리석은 분수 편안한데 학문 퇴보하니
 늘그막이 걱정스럽네
 퇴계의 가에 비로소 거처 정하고,
 시냇물 굽어보며 날로 반성해보네



안동의 맛





글, 사진 이희철



• 무주무손국수

무주무손국수는 경상도 북부지방 문화권 지역권에 있는 안동국수를 판매하는 식당이다. 안동국수는 밀가루에 콩가루를 넣어 면이 푹푹 잘 끓이고 콩가루 특유의 고소함이 느껴진다. 식당에서 직접 농사지은 콩, 메밀, 고춧가루 등을 사용하여 김치, 메밀묵, 두부 등을 만들어 손님에게 제공한다. 그래서 식당이 논밭으로 둘러싸인 외곽에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사 시간이 되면 대기표를 받고 기다려야 할 정도로 손님이 몰린다. 메인메뉴가 나오기 전에 조밥과 함께 제철 나물로 만든 반찬이 차려진다. 국수는 소화가 잘되어 배가 빨리 고파지기 때문에 먼저 나오는 조밥을 야채에 쌈 싸 먹으면 좋다. 함께 주문한 돼지 수육은 질기거나 푸석하지 않고 부드럽고 쫄득하다. 화려하지 않지만 맛있고 색다른 음식을 찾는다면 이곳을 추천해 드린다.



-  주소 경북 안동시 무주무4길 29-10
-  전화번호 054-823-2563
-  영업시간 11:30~20:00
(브레이크 타임 15:00~17:00)
-  휴무일 매달 1, 3번째 일요일 정기휴무









월영숯불



월영숯불은 봉화군 다덕약수탕에서 30여 년간 외할머니가 운영했던 식당의 닭불고기 맛을 외손자가 이어받아 문을 연 식당이다. 이곳은 냉동육이 아닌 생고기만 고집하며, 숯불 향이 일품인 석쇠 구이를 제공한다. 개별로 나뉜 공간이 여러 개 있어 사적인 모임이나 조용한 분위기에서 식사하기 좋다. 주문 후 자리에 앉으면 매일 바뀌는 10가지 이상의 정갈한 밑반찬이 나온다. 청송군의 닭불고기는 잘게 다져서 떡갈비처럼 나오지만, 월영숯불의 닭불고기는 한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잘려져 있다. 돼지석쇠구이는 고추장 양념, 간장 양념, 소금구이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이라면 맵지 않은 간장양념이나 소금구이를 추천한다.

-  주소 경북 안동시 와룡면 동약골길 76
-  전화번호 054-856-5700
-  영업시간 11:00~21:00
-  휴무일 없음



월영당

월영당은 안동의 아름다운 야경을 자랑하는 대표 관광지인 월영교 인근에 있는 지붕 위에 보름달이 떠 있는 한옥 카페이다. 내부 창가 또는 외부 테이블 어디에 앉더라도 안동댐의 멋진 뷰를 볼 수 있다. 월영당은 안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가 많은데, 그중 하나가 환각 성분을 제거한 식용 대마 씨앗으로 만든 대마씨앗라떼이다. 국내산 썩떡을 갈아 넣어 만든 썩떡쉐이크를 주문했는데, 달짝지근하면서 작게 잘린 썩떡이 빨대를 타고 올라오면서 썩의 향이 진하게 느껴진다. 안동의 전통과 자연을 한껏 느낄 수 있는 특별한 한옥 카페 월영당을 둘러보길 추천한다.







- 📍 주소 경북 안동시 민속촌길 26
- ☎️ 전화번호 0507-1359-8613
- 🕒 영업시간 10:00~22:00
- 🚫 휴무일 없음

태리커피

태리커피는 도산서원 가는 길목에 있는 카페이다. 400여 년 된 왕버드나무가 마당에 자리 잡고 있으며, 카페 바로 옆 밭에는 작약꽃이 만개하여 아름답게 피어 있다. 카페 내부에는 꽃이 그려진 그림과 생화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으며, 안쪽 공간에는 제법 오래된 오디오 세트와 LP, CD, 책들이 가득하다. 작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음악이 매장을 감싼다. 햇살이 제법 뜨겁지만, 나무 그늘에 앉으니 시원한 바람이 불어 상쾌하다. 도산서원 방면에는 카페가 많지 않으니, 카페인이 필요한 분들은 지나가는 길에 들러보는 것을 추천한다.



-  주소 경북 안동시 와룡면 동악골길 76
-  전화번호 054-856-5700
-  영업시간 11:00~21:00
-  휴무일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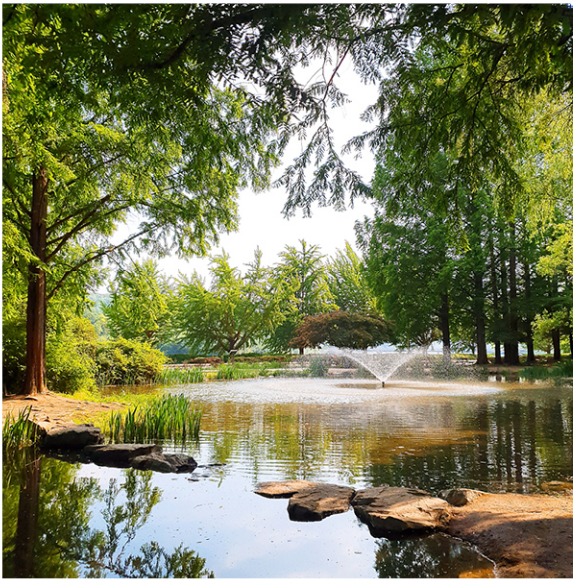


안동, 여름의 활기 속에 화려하게 꽃피다.

여름날 안동에서 만난 낭만

글 최현정

봄을 맞이하여 안동을 방문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다. 전국에서 여름에 가장 덥다는 '대프리카' 대구의 여름을 피해 온 나의 눈에 비친 안동의 여름은 어떤 모습일까? 이번에는 안동의 여름과 그 낭만을 느껴보고자 한다.



1. 작지만 아름다운 숲 공원 '낙강물길공원'

이번 여행의 주된 목적은 대구 도심 속 무더운 여름을 벗어나 시원한 안동의 자연을 찾아가는 것이다. 직접 운전하며 안동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푸른 산과 강변 풍경에 마음이 차분해진다. 버스를 이용하여 1시간 30분이 소요된 지난번과 달리 자가용을 이용하니 거의 1시간 정도 만에 도착할 수 있었다.

내가 대구에서 안동으로 향한 시간은 오후 4시, 여름이기에 아직은 햇빛이 제법 따가운 시간이다. 푸른 하늘 아래 운전을 하다보니 어느새 첫 번째로 갈 곳인 낙강물길공원에 도착하였다.

이곳은 작지만 아름다운 숲 공원으로, 낙동강변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와 쉼터가 있어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곳이다. 공원 내부에는 다양한 수목과 꽃이 가득하고 시원한 바람이 수목과 꽃을 통과해 나에게 다가와 좋은 기분이 들게끔 해주었다.

낙강물길공원에 도착한 후, 먼저 주변을 둘러보며 여유롭게 산책을 했다. 공원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낙동강의 맑은 물과 푸르른 자연경관을 감상하니 기분이 좋다. 특히 강변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는 강과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했다.

공원 내부에 심겨있는 다양한 수목은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곳에 잠시 멈춰 서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어, 지친 몸과 마음이 서서히 치유되는 듯했다. SNS에서 전국적인 포토존으로 유명한 호수 사이 돌다리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메타세콰이아 군락이 무성한 공원을 한 바퀴 걸으며 시간을 보내고 나와 월영교 쪽으로 향했다.



2. 여름 저녁 몽환적 야경 체크포인트 '월영교'

공영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하늘을 보니 하늘색은 보랏빛과 핑크빛이 섞인 몽환적인 색으로 바뀌고 있었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태양이 천천히 지고 있었고, 그 빛이 하늘과 구름을 물들이며 아름다운 일몰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 그림 같은 풍경을 보며 발걸음을 천천히 옮겨 월영교 쪽으로 향했다. 다리 위에 서자 강물이 반짝이며 흘러가고 있었고, 수목들이 강 양쪽 물속에 잠겨 있었다. 월영교 주변으로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다리 위로 은은한 조명이 비치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더해주었다.

월영교는 낮과 밤의 풍경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 방문해도 색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저녁노을과 월영교의 조명이 어우러진 이 풍경은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안동의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었다.



월영교를 천천히 건너며 바람에 휘날리는 나뭇잎 소리와 강물 흐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평화롭고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전통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월영교와 낙동강은 이번 여행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소로 남을 것 같다. 오색빛깔의 강 위를 유영하는 문보트는 마치 동화 속 장면을 연상시켰고, 그 모습을 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은 여행의 여운을 더해주었다.





대구에도 안동의 월영교와 비슷한 수성못이 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수성못은 거대한 도심과 상권에 둘러싸여 있어 여유로움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고 월영교는 조용하지만, 그 속에 화려함이 있는 아름다운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다.

월영교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까 하다가, 주변을 검색해보니 구름에리조트라는 유명한 한옥 숙박 시설이 있어서 커피를 한잔 사서 방문해보기로 했다. 월영교에서 구름에리조트로 가는 길은 오르막길이라 다소 힘들었지만, 주변 한옥과 자연이 만들어낸 경관을 구경하며 걸으니 금방 도착할 수 있었다.

구름에리조트에 도착하자 한옥 건물들이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었고 노을 속 한옥을 바라보며 커피 한잔을 천천히 즐겼다. 안동의 전통문화와 아름다운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 공간은 안동의 아름다운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였다.

3. 글을 마치며

먼저 낙강물길공원에서 아름다운 자연 속 휴식을 취했고, 월영교 에서는 몽환적인 야경을 감상하며 여행의 낭만을 한껏 느꼈다. 홀로 즐기는 이 순간은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 시간이 되었다.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즐긴 이번 여행은 여름의 신선한 기운 속 안동이 가진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안동의 사계절 매력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설화의 고장 안동, 간담을 서늘하게 할 전설 이야기

글, 사진 윤장원

이번 여름호에서는 안동의 괴담, 설화, 전설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름에 어울리는 내용을 고민하다 등골을 서늘하게 할 괴담이 떠올랐고 여기에 지역 설화 등 살을 덧붙여 볼까 합니다. 사전 조사를 하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무섭다고 느낄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서운 이야기, 공룡, UFO 등 비과학적인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가볍게 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소개해 드릴 이야기들이 실제 사건인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구전 및 미디어를 통해 전해져 내려오는 내용이니 재미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안동 임청각 앞 귀신나무 이야기

먼저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안동 임청각 앞 귀신나무 이야기입니다.

조선 시대 형조좌랑(刑曹佐郎)을 지낸 이명이 1515년(중종 10)에 건립한 주택이며 대한민국 임시 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이상룡 선생의 생가인 임청각(臨淸閣)(경상북도 안동시 임청각길 63)이라는 건축물이 안동에 있습니다. 이 임청각에서는 이상룡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여럿을 배출하였는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철길을 놓겠다는 표면상의 이유로 임청각





건물을 허물려고 시도를 하다 한가지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바로 임청각 앞에서 대문을 지키던 회화나무인데요. 수명이 길고 생명력이 강해 기개와 절개의 상징으로 예로부터 신성한 수호신의 역할을 하곤 했던 이 나무를 베려 하자 관련 인물들에게 끊임없이 사고가 났던 것입니다. 맨 처음 나무를 베라는 명령을 받는 인부가 도끼로 나무를 찍으려 하자 갑자기 벼락이 떨어져 인부가 사망하였습니다. 다음 인부는 일하던 중 마무리를 하지 못해 집으로 돌아갔으나 다음날 얼굴이 새까맣게 타서 죽어있었으며, 계속된 사고로 작업이 더더지고 기이한 소문이 퍼져 무당을 불러 굿을 했으나 무당 또한 작두를 타다 발가락이 절단되는 등 슬한 사고와 소문으로 일본인들은 나무를 베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후 나무는 이러한 시도에도 맞서기라도 하듯 신실한 철도를 감싸는 형태로 철도 쪽으로 기울어졌고 주민들에게는 신성시되어 숭배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소문과 전설이 좀 잠잠해진 뒤 1970년대 안동댐 건설과 경제 개발 계획으로 도로를 만들기 위해 또 나무를 베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작업하던 인부들이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하지 않던 상황과 노동 여건 등의 환경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망 사건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불도저의 삽이 빠지고 고장이 난다거나 돌풍이 불어 인근 컨테이너에 불이 붙는 등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연속해서 발생했고 다시 과거 귀신나무 때문이라는 소문이 나돌며 나무를 베는



일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 후 나무는 베이지 않고 도로를 조금 침범한 위치에 오랫동안 유지되었지만,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탓에 자동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오토바이를 타던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 또한 일어났다고 합니다.

나무를 베려는 시도가 수없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기이한 사건들로 살아남은 영험한 귀신나무는 어느 날 누가 베었는지도 알 수 없이 밀동만 남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사망 사건 당사자의 친가족이 화가 나 베어버렸다거나 종교인들이 몰래 베었다거나 취한 노인이 야밤에 전기톱으로 나무를 베자, 피가 뿜어져 나왔다는 등 소문만 무성하게 남은 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후 생명력이 끈질긴 나무는 남은 밀동에서 또 새싹을 틔웠고 안동 사람들 사이에서는 '베어야 한다.', '보존해야 한다.'로 의견이 나뉘었으나, 그 사이 대학생들이 나무를 또 치어버려 남은 뿌리마저 죽어버렸고 시에서 정리했다고 합니다.

우리 토속신앙 중에는 '살煞'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해치는 독하고 모진 기운이란 뜻으로 '살煞이 끼다.', '살煞을 날리다.' 등으로 쓰입니다. 이 살煞의 기운을 맞서는 방법은 그에 맞먹는 살煞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 있는 나무를 베려 하면 죽는다.' 소문에도 나무를 베어버린 사람은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찬 가족의 소행이 아닐지 생각이 듭니다. 나무가 정말 우리 민족을 지켜주던 수호신일지, 그저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원혼에 의한 악령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없어져 버린 소문만 무성했던 귀신나무의 흔적을, 오가는 길에 한 번씩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수곡 무실 처녀당 이야기

다음 이야기는 안동 수곡 무실 처녀당 이야기입니다.

안동시 임동면 수곡리 마을에 한 나이 많은 처녀가 시집을 못 가고 죽었는데 이후에 별 탈 없던 마을에는 자꾸만 사건 사고들과 재앙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시집을 못 간 처녀가 원한을 품어 생기는 일이라 생각하고 무당을 불러 굿을 하였고 처녀가 무당을 통해 말하기를 자신은 마을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어 뒷산을 떠나지 못했으니, 나를 마을 사람들과 같이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논의를 한 후 뒷산에 '당堂'을 만들고 정월 열나흘날 제사를 지내주기로 했고 매년 높은 산에서 제사를 지내다 보니 힘이 들자, 마을굿을 한 후 현재의 장소인 동네 어귀로 옮긴 후 '처녀당'(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수곡리 464)이라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처녀당에 제사를 소홀히 지내면 마을과 더불어 지나다니는 행인들에게도 재앙을 미쳐 소와 말이 걸음을 멈추고 움직이지 않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유사有司들은 인적이 없는 밤 목욕재계하고 부정한 것을 피하여 온종일 집에서 나가지 못했으며 음식을 차리는 집에는 새끼줄을 걸고 흰 종이를 꽂아 출입을 막고 첫닭이 울기 전 제사 음식을 준비한 후 당堂집 사이 붉은 흙을 뿌렸다고 합니다.

처녀가 말한 뒷산이자 원래 처녀당이 있던 곳은 임동면 수곡리의 '아기산鵝岐山'이라고 하니 등산할 일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는 것도 등산길에 즐거운 기행이 아닐지 생각합니다. 또 이 이야기는 네이버 웹툰 '귀신이면 어때'의 모티브로도 차용되어 만화를 보신 분이라면 어딘가 들어본 듯한 이야기라고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오늘날 출산율과 더불어 결혼하지 않는 인구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처녀당, 총각당이 생길지 걱정이 앞섭니다. 각자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한 연애와 결혼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원림리 각시당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는 결혼 못한 처녀 이야기가 아닌, 결혼할 뻔한 각시 이야기입니다.

옛날 안동과 의성을 오가기 위해서는 안동 갈라산葛羅山(경북 안동시 남선면 현내리)을 통하는 길이 가장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갈라산을 통해 다녔는데, 한번은 의성에서 안동 방향으로 시집을 오는 색시를 태운 가마와 안동에서 의성 방향으로 시집을 가는 색시를 태운 가마가 산 중턱에서 마주치게 됐습니다. 한쪽은 험한 산이 있고 반대편은 높은 낭떠러지가 있는 좁은 길이기 때문에 서로 오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초행길을 나서는 색시를 태운 가마가 물러서면 재수가 없다는 속설이 있었기 때문에 얹친 데 덮친 격으로 가마꾼들이 서로 물러서지 않고 꼼짝을 안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서로 양보하지 않고 가마꾼들 사이 가마싸움이 벌어졌고 차츰 힘이 약한 한쪽 가마가 밀리다가 그만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져 가마 안의 색시도 가마와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후에 갈라산 중턱 각시의 넋을 달래기 위해 각시당을 짓고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번 각시당 가마싸움 이야기는 옛날이야기 같지만은 않습니다. 오늘날도 가마가 아닌 차로 인한 사건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저 또한 자존심으로 인해 큰일을 망치거나 관계를 그르친 일이 많은데, 단순하고 평범한 옛 설화나 전설에는 현대를 관통하는 주제들이 종종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하는데 옛날이야기를 교훈 삼아 양보의 미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이번 호에서 민간설화를 전하며 돌아보니 가볍게 느낄 이야기도 있지만 현대사회에 교훈을 주는 이야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무더운 여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동의 사계절 꽃놀이 명소

벚꽃 (3~4월경) 장소: 하회마을, 낙동강변, 벚꽃길, 월영교



벚꽃은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교목으로 결박, 정신의 아름다움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다. 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꽃으로 벚꽃이 피면 봄이 왔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 벚꽃은 벚나무의 꽃으로 안동에도 유명한 벚꽃 명소가 있는데 바로 하회마을, 낙동강변, 벚꽃길, 월영교이다. 특히 벚꽃길에서는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안동 벚꽃축제가 개최되는데 벚꽃이 만개하여 뒤덮은 하얀 하늘을 감상해보자.

산수유 (3~4월경) 장소: 하회마을, 군자마을

산수유는 층층나무과에 속하는 낙엽교목으로 영원한 불멸의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다. 초록의 바다 위에 노란 점이 콕콕 박혀있는 듯한 산수유, 노랗게 핀 산수유 꽃을 보고 있으면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이 왔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 노랗게 물든 봄의 시작을 안동에서 함께해보자.



금계국 (5~6월경) 장소: 낙동강변 둔치

금계국은 국화과에 속하는 속근초화로 상쾌한 기분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다. 금색 닭을 닮은 국화라는 금계국은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꽃으로 금계국이 보이면 여름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동시내 곳곳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으며 특히 낙동강변에서 안동병원 방향으로 가다보면 안동대교를 건너기 전 낙동강변 둔치에서 넓게 펼쳐진 금계국을 만나볼 수 있다.



배롱나무 (7~9월경) 장소: 병산서원, 체화정, 목계서원

배롱나무는 부처꽃과에 속하는 낙엽교목으로 부귀, 떠나간 벼를 그리워한다는 꽃말을 가지고 있다. 안동의 대표적인 배롱나무 명소는 병산서원과 체화정, 목계서원이 있다. 고풍스러운 서원과 산천에 둘러싼 청량한 분위기에 어울리는 진한 분홍색의 배롱나무 꽃은 아름다운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린다.



개미취꽃 (9~10월경) 장소: 하회마을

개미취꽃은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초로
기억, 먼 곳의 벚을 그리다는
꽃말을 가지고 있다.
연보라색의 개미취꽃은 가을철
하회마을에서 만날 수 있다.
충효당과 작전고택 사이에 개미취꽃
군락지가 있으니 방문해서 보랏빛
물결을 느껴보자.



메밀꽃 (9~10월경) 장소: 맹개마을, 평평 메밀꽃밭



메밀꽃은 마디풀과에 속하는 한해살이풀로
연인, 인연, 사랑의 약속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다. 가을에 볼 수 있는 눈처럼
새하얀 메밀꽃을 볼 수 있는 안동의 명소로는
대표적으로 두 곳이 있는데 맹개마을과
평평 메밀꽃밭이다. 맹개마을에서는
산속의 메밀꽃밭을 볼 수 있다면, 평평
메밀꽃밭에서는 시원하게 펼쳐진 평지에서
메밀꽃을 볼 수 있다.



국화 (9~10월경) 장소: 도촌마을, 서후면 태장리 일원



국화는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살이풀로 진실, 짝사랑·실망, 성실·진실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다. 아름다운 산촌인 도촌리에서는形形色색의 향기로운 국화꽃을 만나볼 수 있다. 가을이 되면 도촌마을에서는 노란색, 자주색, 흰색, 빨간색 잎을 펼친 국화가 꽃내음을 풍기고 있다.

눈꽃 (12~1월경) 장소: 암산유원지 일원

안동에는 겨울에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꽃이 있는데 바로 눈꽃이다. 한겨울철 기온이 내려가면 나뭇가지에 꽃이 핀 것처럼 내려있는 눈을 감상할 수 있다. 눈이 잘 오지 않는 안동에서 눈꽃이 내려앉은 하얀 설경을 보게 된다면 운이 좋은 것이다. 눈꽃이 내린다면 포근한 겨울 정취를 만끽해보자.



여름의 푸르른 어느 날,
물길 따라 흐르는
안동의 수변 감성 여행지로
떠나요.

안동의 수변 감성 여행지

낙동강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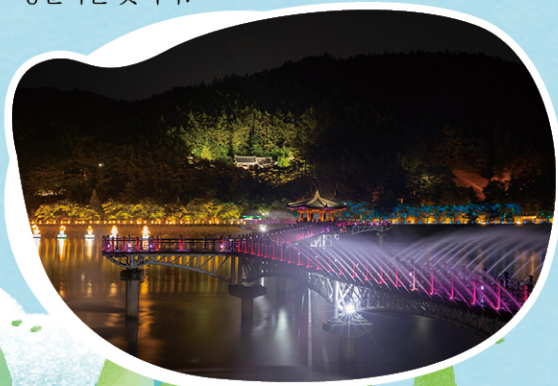
낙동강은 강원도에서부터 부산까지 이어지는 한국에서 가장 긴 강이다. 낙동강은 안동 시내를 관통하는데 특히 강변을 따라 여러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다. 강변을 따라 낙동강을 걸으며 아름다운 풍경을 누리보자.



월영교

경상북도 안동시 상아동 569

월영교는 안동댐 건설로 수몰된 월영대가 현재 위치로 온 것과 월곡면, 음달골이라는 지명을 참고로 확정되었다. 월영공원과 안동민속촌을 연결하는 월영교는 국내 최장의 목조다리이다. 일몰 후에는 가로등이 점등되어 야경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이다.



낙강물길공원

경상북도 안동시 상아동 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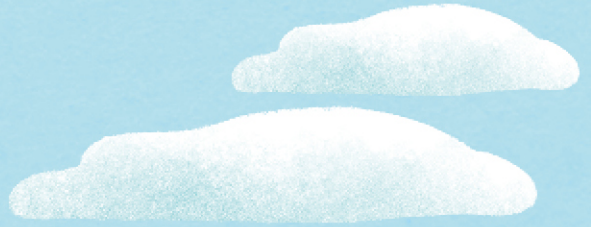
편안한 휴식과 힐링을 제공하는 낙강물길공원은 안동댐과 낙동강과 어울리는 숲길을 조성하여 탐방객을 맞이한다. 작은 연못을 끼고 메타세쿼이아 숲길과 오솔길이 어우러져 한국의 지베르니 공원이라고 불린다. 특히 작은 연못 위 돌다리는 안동의 유명한 포토스팟 중 하나이다.



선성수상길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선성길 14

선성수상길은 예끼마을에 있는 아름다운 길이다. 안동호의 물 위에 떠 있는 부교라 안동호의 풍경을 온몸으로 느끼며 걸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안동호의 운치를 느끼며 가벼운 산책을 즐겨보는 것이 이 길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가곡지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650

가일마을의 입구에 위치한 가곡지는 산과 저수지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연출한다. 가곡지에는 한 바퀴 돌 수 있는 수변 테크가 조성되어 있고 '달 그네' 조명도 설치되어 수변 조명 야경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호민지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964

호민지는 경북도청 신도시에 있는 걷기 좋은 수변생태공원이다. 호수 주변으로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도심 속 자연에서 휴식과 여유를 누릴 수 있다. 호민지를 걸으며 잠시나마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월영야행
7. 26.(금) ~ 8. 4.(일)

안동의 여름밤, 월영교에서는 달빛이 들려주는 안동의 문화유산 이야기 '월영야행'이 개최된다. 안동의 문화유산 이야기를 8夜(야경, 야로, 야사, 야설, 야화, 야식, 야숙, 야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번 여름은 아름다운 달빛을 따라 월영교 일대를 거닐어보자.



2024 안동 수페스타
7. 27.(토) ~ 8. 4.(일)



한여름 더위를 날리는 시원한 여름 축제! '2024 안동 수페스타'. 문화예술인들의 신나고 감성적인 공연, 넓은 공원에 펼쳐진 캠프닉, 시원하게 더위를 날려줄 물놀이와 물총싸움, 불꽃놀이와 함께하는 EDM 파티, 플리마켓과 푸드트럭까지. 이번 여름 더위는 안동에서 시원하게 날려보자.

안동의
문화예술



Let's Go 신나는 예술놀이

- 일시: 2024. 6. 25.(화) ~ 8. 18.(일) 10:00-19:00
- 장소: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상설갤러리, 5갤러리



아트 인 라이프 전시 「Neverland - 어디에도 없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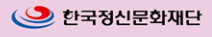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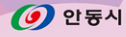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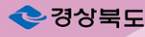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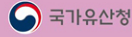
- 일시: 2024. 7. 10.(수) ~ 7. 31.(수) 09:00-18:00
- 장소: 안동국제컨벤션센터 세계유교문화박물관 기획전시실



‘낙동강 음악분수 쇼와 함께 Shall We Dance’ 무용공연

- 일자: 2024. 6. 15.(토) / 6. 29.(토) / 7. 13.(토) / 7. 27.(토) (4회)
- 시간: 20:00 - 20:30
- 장소: 낙동강 음악분수

문화유산
여행



달빛이 들려주는 안동문화유산 이야기
2024 안동 문화유산 야행

월영 야행

2024.7.26.(금) - 8.4.(일)
18:00-22:00 월영교 일원 (안동시 상아동 569)





2024.7.27.(SAT) - 8.4.(SUN)

안동 낙동강변 성희여고 앞 물놀이장

주최/주관 한국정신문화재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안동시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문화의 춤

2024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9.27.④ ~ 10.6.④ 일

구)안동역, 원도심, 탈춤공원 일원

주관 한국정신문화재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안동시



시민기획프로그램 모집 공고

- 모집기간: 2024. 6. 5.(수) ~ 8. 2.(금)
- 접수대상: 개인, 팀, 단체, 기획사, 업체 등
- 모집분야: 공연, 전시, 체험(이벤트), 기타 프로그램
- 접수문의: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축제콘텐츠팀
(☎ 054-840-3427)



자유참가작 모집공고

- 모집기간: 2024. 6. 3.(월) ~ 8. 2.(금)
- 접수대상: 개인 또는 단체
- 모집분야: 페이스페인팅, 탈 착용 등 탈춤 축제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공연
- 접수문의: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축제콘텐츠팀
(☎ 054-840-3424)



세계탈놀이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 모집기간: 2024. 6. 14.(금) ~ 9. 6.(금)
- 접수대상: 개인 또는 단체
- 모집분야: 페이스페인팅, 탈을 이용한 장르 무관의 춤
- 접수문의: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축제콘텐츠팀
(☎ 054-840-3424)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안동교육지원청, 안동시, 안동시의회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으로 초대합니다!

We invite you to Andong City: The Capital of Korean Ethical
Philosophy, inheriting traditional Korean Culture and Education!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으로 오시는 길

버스


서울 서울고속버스터미널 ▶ 안동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 ▶ 안동
부산 부산동부터미널(노포동) ▶ 안동
대구 동대구터미널 ▶ 안동
대구북부시외버스터미널 ▶ 안동


기차

서울 서울역 ▶ 안동
청량리역 ▶ 안동
부산 부전역 ▶ 안동
대구 동대구역 ▶ 안동

 blog.naver.com/aftf

 [instagram.com/andongtour](https://www.instagram.com/andongtour)

 www.facebook.com/tourandong

 '안동노닐기' 검색